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으로 이룬 중동 선교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 국내외 뉴스.

관용의 지혜

마음에 진리가 풍성히 임해 자기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관용을 이룬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영적인 사랑 이루기 위한 생각 점검

나는 얼마나 영적인 사랑을 소유했는지, 혹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않은지 세 가지 분야로 살펴본다.

최고 의사이신 주님을 전하는 기쁨

의학으로 하나님 권능을 입증하는 WCDN 사역을 통해 발간반도와 유럽 복음화를 꿈꾸는 불가리아 디렉터 류브카 탄체바 박사 간증.

# 만민뉴스

제611호 2013년 12월 8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중동에 전해진 성결의 복음과 하나님 권능!

### 두바이 · 샤르자 · 아부다비의 알아인 지역에서 손수건 집회 열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2003년 4월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를 방문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뒤, 기도해 줌으로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고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는 등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낸 바 있다.

이후 이재록 목사의 설교가 파키스탄 기독교 방송 이삭TV를 통해 하루 6시간씩 중동 지역에 방송돼 성결의 복음과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꾸준히 전해왔다.

최근에는 두바이에 거주하는 외국인 기독교인들의 요청으로 길태식 목사(대전만민교회 담임)가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아랍 에미리트의 두바이, 샤르자, 아부다비의 알아인을 방문해 손수건 집회를 인도했다.

이삭TV를 통해 집회 개최를 알게 된 인근 나라에서도 동참했으며, 무슬림들도 참석해 하나님 권능이 담긴 손수건 기도로 치료받아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아랍에미리트는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아지만, 움알카이와인, 라스알카이마, 푸자이라의 7개 토후국으로 이뤄져 있다. 이슬람교가 국교로서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지만 아부다비의 알아인, 두바이 등의 특정 지역을 외국인 종교 지역으로 인가해 타종교의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21일에 열린 첫날 집회는 샤르자 지역 샤르자워십센터에서 있었다. 강사 길태식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섭리를 전하는 이재록 목사의 대표적 설교 '십자가의 도' 가운데 '인간 경작의 섭리'에 대해 전



강사 길태식 목사(왼쪽 맨 왼쪽)의 설교를 통해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이유가 확실히 선포되고, 권능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로 치료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 중동의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충만함을 입었다.

한 뒤,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참석자들에게 기도해 주었다.

15년간 귀신 들려 고통받던 사람이 기도 받은 후 정상이 됐으며, 이삭TV를 보고 파키스탄에서부터 온 여성도는 기도받은 뒤 5년 된 허리 통증과 심한 전신 가려움증을 치료받아 하나님께 간증으로 영광 돌렸다.

22일에 열린 둘째 날 집회에서는 샤르자 지역 세인트 마틴 교회에서 길 목사가 '인간 경작의 이유'와 '예수가 구세주가 되시는 4가

지 조건'에 대해 세 차례 설교를 했으며,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방문 및 체류 중인 기독교인들이 허가된 한 장소에서 시간을 나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국가별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곳에서 간증하지는 못했으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권능을 체험했다고 고백했다.

23일에 열린 셋째 날 집회는 아부다비의 알아인 지역 복음주의 교회에서 열렸다. 길 목사는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가'에 대해 설교한 뒤,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었다.

한 무슬림 청년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측 마비 증상이 있었는데 기도를 받은 뒤 치료됐다. 또 한 성도는 심장에 심한 통증을 치료받아 눈물로 간증했다. 이 밖에도 귀신 들린 한 청년은 회개기도 시간에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는데, 기도받은 후 증상이 돼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24일에는 현지 목회자 및 주요 인사들과의 만남을 갖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 만민의 사역을 소개했다. 현지 목회자들은 "길태식 목사를 통해 나타내 보인 만민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완벽한 사역이다."라고 말했다.

길 목사는 "예상을 뛰어넘는 호응에 놀랐다. 그들은 말씀에 은혜를 받고 기도받기를 사모하며 하나 되고자 했다. 이후에도 기회가 닿는 대로 방문해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당회장님께서 품으신 복음의 열매를 내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은 복음의 오지인 중동을 비롯해 전 세계 71억 영혼에 대한 주님의 간절한 기다림을 되새기는 축복된 시간이었다.

#### 포토뉴스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지난 11월 27~28일에는 여성교회총연합회 주관으로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제16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열렸다. 평소 구제하는 가정과 신대방2동주민센터, 가리봉동주민센터, 구로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등에 10kg들이 1,234박스를 전달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홀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17)

# 관용의 지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대로 잡수시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시면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영혼들을 위해 많은 수고와 눈물을 쏟으시고 결국은 생명까지 내어주셨지요. 죄와 허물이 없으신 분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풍성한 진리의 마음으로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무수한 영혼을 구원해 천국으로 이끄셨지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까? 설령 큰 손해가 난다 해도 자신의 것을 줄 수 있으신지요? 자신의 유익과 취향, 자존심, 주장 등을 고집하면 자신을 내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뚝은 자기 유익을 좇아 물이 넘니 하고 기름진 땅을 선택해 떠났습니다. 도리를 따진다면 당연히 뚝이 아랫사람으로서 종들끼리 다투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삼촌이 마음 쓰지 않도록 먼저 처신해야 했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은혜도 모르고 떠난 뚝을 전혀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을 내어주고, 더 달라 해도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뚝에게 다 주고 양보했으니 손해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한 그에게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모든 땅과 티끌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넘치는 관용을 베풀었으며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것 이상의 선을 행했기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공의가 성립된 것입니다.

다. 진리가 마음에 가득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자유함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진리대로 살지 않는다 해서 내 생각에 맞춰 판단,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음에 진리가 가득하다는 것은 진리를 머리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 지식은 교만한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했습니다.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을 알면서도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가 섬김 받기 원하는 모습을 보면 금방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높구나!’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정작 자신이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가 가득해 관용의 마음을 이루면 상대의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 바라봐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지만, 상대의 허물과 비진리를 사랑으로 품고 덮어 주지요. 과거에 수많은 허물이 있었던 자신도 주님의 사랑으로 공홀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상대를 공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비록 상대가 악으로 행한다 해도 판단 정죄하지 않으며, 그를 소중한 영혼으로 여기고 진리로 이끌어 줍니다. 이런 마음을 이룰 때 상대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관용’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진리로 가득 채워 관용을 이루면 하나님 사랑이 넘치고 풍성하게 됩니다. 내 것을 나눠 주어도 아깝지 않고, 남이 나보다 잘되는 것을 보아도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더 잘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더 많이 누리도록 내 것까지 내어줄 수 있지요.

여러분도 관용의 지혜를 받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2. 관용의 지혜로 누리는 복

이 세상에서는 자기 것을 남에게 내어주지 않고 잘 지켜야 똑똑하다고 합니다. 하나를 주면 그 이상을 받아야 지혜롭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며 참된 지혜입니다. 자신의 것을 넉넉하게 내어주며 섬겼을 때 결코 손해가 아닌 당장의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지요. 바로 이것이 넉넉한 관용의 마음에서 비롯된 지혜의 열매입니다.

마음속에 미움, 혐기, 욕심, 변개함 등 비진리가 있는 만큼 넉넉하고 관대한 모습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용을 ‘자신을 다 내어주는 것’이라 하지 않고, ‘마음에 진리가 풍성히 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족이 많아지자 제한된 땅에서 물과 풀을 얻어야 하므로 종들 간에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창 13:9) 합니다. 즉 롯이 먼저 갈 곳을 선택하면 자신이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말이지요.

## 3. 관용에서 나오는 진리의 자유함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진리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진리가 족쇄처럼 여겨지지만 진리를 사랑하고 행하는 사람은 자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면, 범죄자는 경찰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만 선량한 시민은 경찰을 보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맙고 든든해하지요. 마찬가지로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법이 사랑이며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기에 즐거워합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에는 영업을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세상 오락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족쇄처럼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서 기쁨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일 성수를 하면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인정해 드림으로 평안과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기에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진리를 행하면서 기뻐하며 자유함을 누리게 되지요.

또 다른 예로, 우리가 미움을 버리면 마음이 가볍고 행복해집니다. 진리가 죄의 멍에를 풀어 주고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이니



우리가 사심을 버리고 진리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만큼 하늘의 지혜가 임해 영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옳은 것을 쉽게 분별할 수 있고,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어렵지 않지요. 이는 당장은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으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진리를 행하는 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또 진리의 길이 밝히 보이므로 다른 사람의 문제도 명쾌하게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지요. 바로 관용의 지혜로 얻은 열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관용의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1. 관용의 영적 의미

관용이란 사전에서 ‘너그럽게 용서하고 용납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영적 의미는 ‘진리가 마음에 풍성하게 임하면서 동시에 진리의 자유함이 있으므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지요.

우리가 물질은 물론 시간과 노력, 관심, 섬김,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려면 진리가 마음에 가득 임해야 합니다. 풍성한 진리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가장 좋은 모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아무 죄와 허물이 없으셨습니다. 그 마음이 온전한 진리 자체이셨고



**교회로 오시는 길**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 도보 10분  
사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504,643,5626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구로디지털단지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금요일아침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아침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아침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아침예배 [아동부]	3:00 PM
다·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 ‘악한 생각’ 점점하기

고린도전서 13장 4~7절을 보면 영적인 사랑에 대해 15가지 항목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것이다. 과연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얼마나 영적인 사랑을 소유하고 있을까? 얼마나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지 악한 생각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때, 자신에게 해당하는 분야가 있다면 신속히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 버리고 아름답고 선한 영적인 사랑을 소유하기 바란다.

##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생각은 하지 않나요?

### 01

자신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사업이 잘되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잘 안 됐으면.’ 한다거나,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니 ‘잘됐다.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마음에 영적인 사랑이 임해 있다면 결코 이런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가 항상 건강하고 잘되기를 바란다. 영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상대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이다. 또한 상대의 허물이나 약점을 알고 싶어 하며 그것을 남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것도 볼 수 있다.

가령, 모임에서 누군가 어떤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할 때 귀

가 솔깃해진다면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는 대개 험담하고 수군수군하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했다.

마음이 선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 주려고 한다. 남이 잘될 때에 시기, 질투하지 않으며 상대가 잘되고 사랑받기를 바란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신 대로 설령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그가 잘되기를 바라며 축복한다.

##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은 하지 않나요?

### 02

영적인 사랑이 온전히 임해 있으면 악한 생각 자체가 떠오르지 않는다. 아무리 좋지 않은 말을 전해 들었다 해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대한 선하게 생각하고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그 사람을 선불리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너무 쉽게 판단, 정죄하며 험담고 비방하면서도 당연하게 여긴다. 사적인 관계뿐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상대의 형편과 처지, 전후 사정 등을 살펴보려 하지도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나” 했다. 만일 상대가 명백한 잘못을 했다 해도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에 앞서 과연 상대에게 유익한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했으니 어찌하든 상대의 허물을 덮어 주고 용서해 주며 상대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상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진리를 알려 주고 변화될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상대를 판단, 정죄하는 생각 자체가 없으면 사랑으로 모든 것이 풀어지니 누구를 만나든지 행복하다.

##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생각은 하지 않나요?

### 03

세상에서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을 선하다고 한다. 하지만 도덕이나 양심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 보면 선이 아닌 것들이 많다. 오히려 하나님 뜻과 정반대의 것들도 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善)의 절대적인 기준이므로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생각을 품는 것은 무엇이나 악한 생각이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하신 것처럼, 죄는 불법 곧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것이다. 따라서 죄와 악은 진리인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비진리이다. 큰 나무에 비유한다면, 악은 보이지 않는 뿌리와 같고 죄는 줄기와 잎, 열매 부분과 같다. 뿌리가 없으면 줄기와 잎이 있을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듯이 죄는 악으로 인해 성립된다.

사람에게 악이 있음으로 인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운 사람에게 찌르는 말을 한다면 이는 마음의 악이 미움, 악한 말 등

의 구체적인 죄로 나온 것이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마음에 악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교양이 있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다면 마음에 악이 있어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본성 속의 악까지 다 버려야 성결될 수 있다. 본성에는 저마다 부모의 기를 통해 받은 악이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다가 극한 상황에 부딪히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것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므로 결국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악이며 죄인 것이다(요일 3:23, 롬 13:10). 따라서 자신에게 악한 생각이 있는지 점검하려면 영적인 사랑이 얼마나 임해 있는지 돌아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p>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p> <p>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3.12.8~12.14</p> <p>December 12</p>	<p>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랑장 17-20</li> <li>2차 영혼육 4-8</li> <li>요한일서 강해 6-10</li> <li>선 13-17 신뢰</li> <li>창세기 강해 6-10, 95</li> <li>믿음을 척량하시니 21</li> <li>우리삶의 등불 1, 3, 4</li> </ul>	<p>GCN TV 설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회(이수진 목사)</li> <li>같은 마음, 같은 뜻(이미경 목사)</li> <li>영의 세계 5(이희선 목사)</li> <li>생명수 9(신동초 목사)</li> <li>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정구영 목사)</li> <li>민음의 분량 2(천우진 전도사)</li> <li>내 모든것 되신 아버지(김진아 전도인)</li> </ul>	<p>예능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8</li> <li>친양드려요 7-8</li> <li>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7-8</li> <li>항기 7-8 • 우린 하나 6-7</li> <li>플로리스트 7-8 • English 4</li> <li>아름다운 예배 5</li> <li>GCN 금요찬양 스페셜 21-25</li> </ul>	<p>해외성회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러시아연합대성회 2</li> <li>뉴욕연합대성회 종합편</li> </ul> <p>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p> <p>GCN 방송</p>
---	---	---	---	---

# “발칸반도와 유럽에 최고의 의사이신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류브카 탄체바 박사 (불가리아 WCDN 디렉터)

저는 불가리아 동방정교회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신앙으로 인해 공산주의와 무신론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사람들 사이에 강한 영적 갈망이 일어날 즈음 저는 직장 동료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현재 저는 불가리아 과학 아카데미 신경생물학부 정신약리학 교수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 WCDN,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이스라엘과의 학술 교류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저는 2011년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이스라엘 목회자 다니엘 로젠 목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첫 만남은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8회 WCDN 콘퍼런스를 통해서였지요. WCDN(World Christian Doctors Network, www.wcdn.org 세계기독교의사네트워크)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치유 사례를 의학적으로 검증해 하나님 역사임을 입증하는 사역을 위해 2004년 설립된 초교파 기독교사 모임입니다. 매년 각국에서 ‘영성과 의학’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열고 다양한 치유 사례 발표를 통해 성령이 참임을 입증하고 있지요.

저는 그 전에도 다른 기독교학 콘퍼런스에 참석해 본 적이 있었지만, WCDN 콘퍼런스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설교 말씀과 치유 사례 발표, 간증을 통해 것처럼 성령의 임재하심을 분명히 느낀 적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다양한 간증과 WCDN의 설립자인 이재록 박사님의 권능의 기도로 나타난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매우 감동스러웠으며, 이 콘퍼런스의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제8회 호주 콘퍼런스를 마치고 불가리아에 돌아온 뒤, 제가 출석하는 크리스천센터 소피아 교회 담임 이반 하자르바사노브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WCDN 콘퍼런스에서 느낀 은혜와 감동을 나눴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뜨거운 비전을 갖게 됐고, 불가리아에서 WCDN 사역을 시작하게 됐지요.

### 이재록 박사님과 만민 사역을 통해 충만함을 얻고

WCDN 사역을 통해 제 신앙은 한층 뜨거워졌습니다. 『전국』과 『지옥』, 자서전 『나의 삶 나의 신앙』 등 WCDN 호주 콘퍼런스에서 가져온 이재록 박사님의 신앙서적을 읽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제 삶에 주신 은혜와 지혜가 넘쳤고, 깊은 영적 충만함을 입었지요. 결국 저는 이 박사님 저서의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읽고 있는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진수이지요. 매우 영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기록돼 있는 이 저서를 통해 아주 깊은 곳까지 영적 터치를 받으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2013년 10월, 이재록 박사님과 만민의 사역을 목도하고 기사와 표적,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고자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지요. 유럽 교회들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성령 충만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대하며,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최고였지요.

해외 여러 나라에서 연합대성회를 인도하는 등 세계 선교를 크게 이루시는 이재록 박사님을 직접 뵈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매우 겸손하고 친절하신 모습이 인상적이신 박사님께서 세계 불가리아의 기독교 현황에 대해 물

으셨습니다. 저는 초기와는 달리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유럽의 기독교 상황을 말씀드린 후, “불가리아 콘퍼런스를 통해 영혼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깨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대답하자 박사님께서 “뚝고 싶다.”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 하나님 권능으로 발칸반도와 유럽이 복음화되기를

2013년 10월 말에는 복음의 발상지인 이스라엘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목도했습니다. 하이파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이수진 목사님을 감사로 열린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4주년 기념 성회에 WCDN 회원으로서 간증 접수차 참석했지요.

이스라엘 전역은 물론 팔레스타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국, 불가리아, 인도 등 여러 나라 의사들이 참석했는데, 감사 이수진 목사님의 메시지는 매우 인상적이었고 선교팀의 공연도 훌륭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이 치료받아 간증하기 위해 줄서 있는 모습이 참으로 놀라웠지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광경을 직접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강사님이 이재록 박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를 해 주자 척추, 무릎, 다리 통증이 사라지고, 시력이 회복되며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고 각종 암, 간질 등이 치료됐다고 많은 사람이 간증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지요. 매우 다양한 치유 사례들이 WCDN측에 접수됐습니다.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알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뜨거운 소명을 되새기는 순간이었지요.

저는 현재 WCDN 불가리아 지부 디렉터로서 2014년 5월 수도 소피아에서 열릴 제11회 WCDN 불가리아 콘퍼런스 준비에 한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영혼-육을 치유하시는 가장 훌륭한 의사이심을 증명할 치유 사례들을 수집하는 제 마음이 벌써 두근거립니다. 발칸반도와 유럽 전역에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자비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동평로 168(부암1동) ☎070-8223-4914, 010-9618-9833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필포동 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